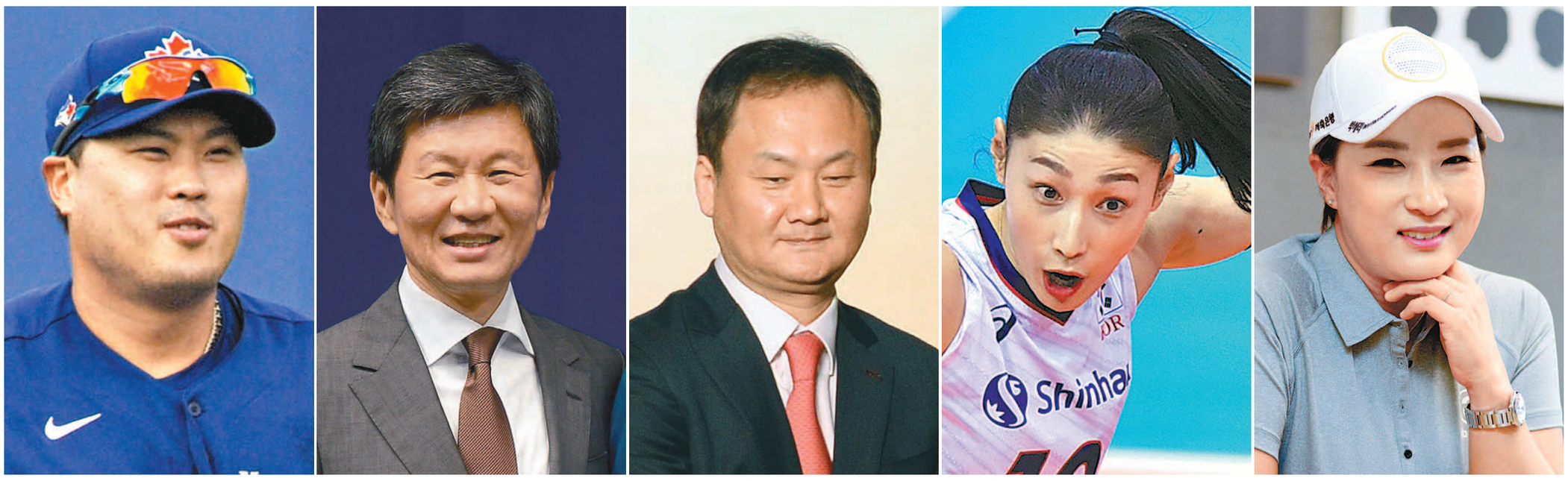
‘8000만 달러 사나이’ 류현진·‘배구 여제’ 김연경 위풍당당



종목별 파워피플들이다. 스포츠동아 창간 12주년을 기념해 실시된 스포츠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에서 류현진(야구), 정몽규(축구), 유재학(농구), 김연경(배구), 박세리(골프)가 5대 프로스포츠 각 종목을 대표하는 ‘파워피플’로 선정됐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종목의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스포츠동아DB

“위기 극복 중요” KBO 정운찬 총재 2위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두 번째 1위에
농구 유재학, 현역 감독 유일의 넘버원
배구여신 김연경·골프여제 박세리 ‘톱’

대한민국 스포츠 전문가 100인이 선정한 ‘우리 종목 영향력 1위’ 명단은 다양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세계에서 한국 스포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현역 선수부터 스타 감독, 잔뼈가 굵은 행정가 등 여러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체육계 전문가 100인에게 자신이 속한 종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파워피플’이 누구인지 물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2년 전 창간 10주년 기념 설문조사와 결과가 달라진 종목도 있어 눈길을 끈다.

20명이 투표에 참여한 야구계 영향력 1위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4표)이 차지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에 올랐고, 4년 총액 8000만 달러(약 929억 원)에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했다. 류현진에게 투표한 감독 A는 “팀을 옮긴 뒤 스프링캠프에서도 대내, 대외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였다. 한국 야구인 중 최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2년 전인 2018년 투표에서 20명 중 9명의 지지를 받았던 정운찬 KBO 총재는 3표로 2위에 머물렀다. 전문가 B는 “정 총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는 총재의 수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경문 야구 대표팀 감독, 이승엽 KBO 홍보대사, 김태형 두산 베어스 감독 등이 표를 받았다.

전문가가 뽑은 ‘우리 종목 최고 파워피플’은?

종목	파워피플 1위	득표수(전체 투표수)
야구	류현진(토론토)	4표(20표)
축구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	10표(20표)
농구	유재학(현대모비스 감독)	4표(15표)
배구	김연경(엑자시바시)	10표(15표)
골프	박세리(여자 대표팀 감독)	4표(10표)
일반 체육	이기흥(대한체육회 회장)	각 5표(20표)
	유승민(IOC 선수위원)	

역시 20명이 참여한 축구에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절반인 10표를 받았다. “대한민국 최상위 축구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이유가 정 회장의 존재감을 설명한다. 2년 전 투표에 이어 2연속 1위 등극이다. 2위 손흥민(토트넘)이 6표로 2위에 올랐고, 박지성 JS파운데이션 이사장과 차범근 전 감독도 이름을 올렸다.

현역 감독이 파워피플 1위에 오른 건 농구가 유일했다. 유재학 현대모비스 감독이 15표 가운데 가장 많은 4표를 받아 2년 전에 이어 또 한 번 ‘농구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인물’로 꼽혔다. 박지수(청주 KB스타즈)는 3표를 받아 허재 전 감독과 나란히 2위에 올랐다.

‘배구 여제’ 김연경(터키 엑자시바시) 역시 2연속 1위에 올랐다. 15표 중 10표(66.7%)를 휩쓸어 득표율은 전 종목 중 1위였다. 2년 전에도 15명 중 7명의 표를 받아 과반수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대표에 대한 책임감과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등 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그를 상징했다. 조원태 KOVO 총재, 신치용 전 감독 등도 표를 받았다.

‘골프 여제’ 박세리 국가대표 여자골프 감독은 2연속 골프 부문 파워피플 1위에 등극했다. 10표 중 4표를 받았다. 일반 체육 전문가 20명이 꼽은 영향력 1위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나란히 5표씩 나눠가지며 1위에 올랐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무응답 13표… ‘종목 초월하는’ 파워피플 부재 아쉬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 셧다운 사태
체육계 목소리 대변할 인물 필요성도

설문 살펴보니…

무응답 13표.

스포츠동아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 종목을 걸쳐 영향력이 가장 뛰어난 인물로 김연아(은퇴·23표)가 꼽혔다. 2위 손흥민(토트넘·21표), 3위 이기흥(대한체육회 회장·15표)과 득표를 합치면 전체 100표의 59%에 달한다. 삼각편대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가 나온 항목은 ‘무응답’이다. “타 종목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정한 파워피플’의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프로팀 감독 A는 “과거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002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에 오르기도 했다. 축구뿐 아니라 타 종목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다”며 “정 전 회장처럼 종목을 아우를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설위원 B 역시 “소속 종목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많지만 체육계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인사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스포츠 셧다운 사태에 특정 인물이 체육계 전반의 목소리를 모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 한 명이긴 하지만 체육계 파워피플로 ‘학부모’를 꼽은 이도 있었다. 과거 설문조사에서는 볼 수 없는 답변이었다. 어느 종목이든 학부모의 입김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익래 기자

종목별 최고 전문가 100인이 ‘파워피플·최고스타·레전드’ 각각 한 명씩 선정

이렇게 뽑았습니다

솔직한 답 위해 응답 결과는 비공개
설문에 따른 집계 결과만 공개하기로

스포츠동아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스포츠 전문가 100인 리서치’를 실시했다. 현역 선수와 지도자, 행정가 등 각 종목별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0인이 자신이 속한 종목과 타 종목의 ‘파워피플’, ‘최고스타’, ‘레전드’를 각각 한 명씩 뽑았다. 분야별로는 야구 20명, 축구 20명, 농구 15명, 배구 15명, 골프 10명, 일반체육 20명을 설문 대상자로 선정했다. 솔직한 답변 유도를 위해 개인별 응답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설문에 따른 집계 결과만 공개하기로 사전에 통보했다. 다음은 설문 응답자 100명 명단.

●야구(20명)
정운찬(KBO 총재), 김응용(KBSA 회장), 김경문(대표팀 감독), 김태형(두산 감독), 손혁(키움 감독), 염경엽(SK 감독), 류중일(LG 감독), 이동욱(NC 감독), 이강철(KT 감독), 허삼영(삼성 감독), 한용덕(한화 감독), 허문회(롯데 감독), 조계현(KIA 단장), 김태룡(두산 단장), 이대호(롯데·선수협 회장), 양현종(KIA), 박용택(LG), 이승엽(KBO 홍보대사), 허구연(MBC 해설위원), 이순철(SBS 해설위원)

●축구(20명)
김판곤(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홍명보(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한웅수(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조광래(대구FC 사장), 허정무(대전 하나 시티즌 이사장), 김호곤(수원FC 단장), 백승권(전북 현대 단장), 김광국(울산 현대 단장), 강명원(FC서울 단장), 김학범(올림픽대표팀 감독), 김기동(포항 스틸러스 감독), 최용수(FC서울 감독), 이동국(전북 현대), 이근호(울산 현대), 현영민(JTBC 해설위원), 한준희(KBS 해설위원), 서형욱(MBC 해설위원), 이영표(전 국가대표 선수), 이용수(세종대 교수), 서정원(전 수원 삼성 감독)

●농구(15명)
방열(대한농구협회 회장), 이정대(KBL 총재), 이병완(WKBL 총재), 유재학(울산 현대모비스 감독), 문경은(서울 SK 감독), 임근배(용인 삼성생명 감독), 위성우(아산 우리은행 감독), 양동근(울산 현대모비스), 김선형(서울 SK), 허훈(부산 KT). 배혜윤(용인 삼성생명), 강이슬(부천 하나은행), 박지수(청주 KB스타즈), 이상윤, 신기성(이상 SPOTV 해설위원)

●배구(15명)
조원태(KOVO 총재), 오한남(대한배구협회 회장), 임도헌(남자 대표팀 감독), 신영철(우리카드 감독), 박기원(대한항공 감독), 최태웅(현대캐피탈 감독), 이도희(현대건설 감독), 차상현(GS칼텍스 감독), 박미희(흥국생명 감독), 한선수(대한항공), 양효진(현대건설), 이세호, 이숙자(이상 KBSN 해설위원), 최천식, 장소연(이상 SBS스포츠 해설위원)

●골프(10명)
구자철(KPGA 회장), 김상열(KLPGA 회장), 강춘자(KLPGA 수석부회장), 김형재(KPGA 선수회 대표), 김대현, 박상현, 이정은6, 김세영, 최혜진(이상 선수), 박지은(SBS 해설위원)

●일반체육(20명)
유승민(IOC 선수위원), 신정희(아시아하키연맹 부회장), 이봉주(대한육상경기연맹 홍보이사), 박장순(삼성생명 레슬링단 감독), 안한봉(삼성생명 레슬링단 감독), 이배영(종로구청 역도단 감독), 현정화(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 문형철(전 양구국가대표팀 총감독), 박시헌(전 복싱대표팀 감독), 하태권(전 배드민턴 요넥스 감독), 곽윤기(쇼트트랙 국가대표), 박태환(수영 국가대표), 양학선(체조 국가대표), 오상욱(펜싱 국가대표), 기보배(전 양궁국가대표), 김윤만(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안상미(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여홍철(경희대 교수), 김동문(원광대 교수), 강광배(한국체대 교수).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